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유통 허브 및 부산지역의 창업 거버넌스 구축’



조 홍 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hkcho@ccei.kr

고려대학교법학과 학사
(전) 롯데월드 영업본부장(전무)
(현)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조홍근)는 부산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구심체로서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주요 목적이다.

특히, 전담기업인 롯데의 상품성 제고 노하우와 유통 채널을 활용하여 ‘창의 상품의 가치제고(Value-Up) 및 시장진출 관문(Gateway)’으로 육성하고 부산의 영화·영상기반을 바탕으로 창작 및 사업화 허브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산의 스마트 시티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다양한 IoT 기술기반 사업추진과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글로벌 창의·문화·유통의 허브 및 부산 지역의 창업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Market Gateway

가치고도화를 통한 혁신상품 기업 육성

특화산업인 유통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혁신상품에 대해 상품 기획, 디자인, 마케팅, 판로 개척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자 및 중소기업에 시장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개발 방향, 기능 개선 방안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그림 1. 유통컨설팅 미팅 현장

특히, 유통 지원 분야 거점 역할로서 전국 혁신센터와 연계를 통한 우수상품 공동 소싱박람회를 개최하여 혁신상품 발굴 및 종합 판로지원 플랫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으로 추진중인 혁신상품 인증제를 주관하여 지역별 우수 제품에 대한 혁신상품 인증 및 인증마크를 부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이는 혁신센터를 통한 지원기업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상품 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사업 설명회, 해외 소싱박람회, 현지 상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유통 허브 및 부산 지역의 창업 거버넌스 구축



그림 2.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목표 및 기능

우수 상품 판로지원에 노력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근 중국 상해와 성도에 혁신상품 전용매장을2개관을 오픈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향후 부산지역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Culture Gateway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부산지역의 영화·영상 및 콘텐츠 제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편영화 제작 지원사업과 영화·영상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의 우수 인재 및 작품을 발굴하여 제작까지 지원함으로써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독립·예술영화 상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롯데 시네마와 협업을 통한 예술전용영화관 3곳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총 98편 및 3,920회 상영을 통해 관객들이 다양한 예술영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부산 지역의 영화·영상 생태계 조성과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IoT Gateway

IoT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부산은 현재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혁신기관과 협업하여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TFFT 구성, 부산시와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 실증 지원을 위한 개방형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시민안전, 교통, 에너지, 생활 편의 등에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그림 3. IoT분과위원회 개최



그림 4. 롯데 고용디딤들 1기 수료식 현장

를 바탕으로 부산지역이 스마트시티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기술개발, 기업 입지, 인재 유입 등의 효과 극대화 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한다.

Job Gateway

고용존 활성화를 통한 청년 취업 지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롯데와 지역 혁신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청년인재의 구직난 해소와 일자리 미스매칭 최소화를 위해 취업플러스아카데미 추진과 롯데 고용디딤들 프로그램 등 취업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전담기업과 연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해당분야에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

고용존은 2016년 3월 개소이후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

굴하여 총 172명의 취업연계하는 성과까지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부산지역의 청년인재 구직난 해소와 지역 채용 활성화 등 고용거버넌스 구축에 교두보가 될 것이다.

맺음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유통허브로서 가치제고와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지역 강소기업 육성과 스타트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영화·영상, IoT 등 특화산업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대기업, 중앙정부, 지역 혁신기관과 지속적 연계를 통해 창업 생태계 조성,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 지원 플랫폼 기관으로서 성장하고자 한다.♂